




# 2022 여름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 추천

(경상남도 진주시)

추천 관광지명	양마산 물빛길
지 역	경상남도 진주시
관광지 주소	경남 진주시 판문동 일원
담당자	경상남도 진주시 관광진흥과 양현진
관광지 사이트	-
추천이유 (특장점)	<p>양마산 물빛길은 진양호공원 전망대에서 상락원, 명석 가화리를 잇는 양마산 등산로를 순환하는 15.3km의 탐방로이다. 고요한 호수와 편백숲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코스로, 잔잔하고 고요한 진양호를 바라보며 눈을 정화하고 편백숲의 피톤치드에 머리가 맑아짐을 느낄수 있어 진양호를 찾는 관광객과 등산객들에게 인기가 많다.</p> <p>1코스는 진양호 공원 후문 도로를 크게돌아 상촌 삼거리를 거쳐서 탐방하는 코스로, 도보로 약 5시간이 소요돼 건강 증진에 제격이다. 양마산 팔각정을 넘어서 숨이 가빠질 때쯤 나타나는 하늘쉼터와 수변 탐조대에서 진양호 풍경을 만끽하며 잠시 쉬어갈 수 있다. 2코스는 진양호 후문의 상락원을 거치는 코스로, 도보로 약 3시간 40분이면 돌아볼 수 있어 바쁜 현대인들에게 알맞다.</p>
연계관광지	진양호동물원, 진양호전망대, 소싸움경기장
사진자료	   

(경상남도 통영시)




추천 관광지명	통영생태숲
지 역(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당동 325
담당자	경상남도 통영시 관광과 조정애
관광지 사이트	<a href="https://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boardId=BBS_0000596&amp;menuCd=DOM_000009409004000000&amp;startPage=1&amp;dataSid=41330048&amp;categoryCode1=ST&amp;categoryCode2=&amp;searchType=DATA_TITLE&amp;keyword=">https://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boardId=BBS_0000596&amp;menuCd=DOM_000009409004000000&amp;startPage=1&amp;dataSid=41330048&amp;categoryCode1=ST&amp;categoryCode2=&amp;searchType=DATA_TITLE&amp;keyword=</a>
추천이유 (특장점)	<p>통영생태숲은 전체 50ha의 넓은 면적에 난대식물 산책로, 숲속 데크로드, 야외 숲속 교육장, 전망대, 휴게숲 등이 구성되어 있다.</p> <p>통영생태숲을 걷다보면 곳곳에 전망대와 정원이 조성되어 있어 통영 운하와 미륵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숲속놀이터와 버섯재배, 팔손이 비밀의 숲, 애벌레 관찰공간 등이 조성되어 아이들에게 숲에서의 다양한 놀이로 흥미로운 체험을 제공한다.</p> <p>또한 숲해설가의 수목이야기를 통해 생태숲에 숨쉬고 있는 다양한 수종들의 나무들을 만날 수 있는데, 숲해설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산림청에 정식 등록된 통영생태숲 내 ‘도릿골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숲교육을 운영하므로 남녀노소 무더운 여름날을 통영생태숲에서 시원하고 신선하게 즐길 수 있다.</p>
연계관광지	<p style="text-align: center;"><b>서피랑마을</b></p> <p>통영생태숲 근처에는 통영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품은 서피랑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통영시내 서쪽의 가장 높은 언덕에 자리한 서피랑마을에서는 박경리 작가의 문학작품을 소재로 한 벽화를 보며 오를 수 있는 99계단과 밟으면 소리가 나는 피아노계단이 포토존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 계단들을 오르다보면 200년 된 후박나무 보호수의 웅장한 자태를 볼 수 있다.</p> <p>또한 서피랑 정상에 있는 서포루에서 내려다보는 통영항의 풍경은 절경이며 이와 함께 서포루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천재화가 이중섭의 ‘선착장을 내려다 본 풍경’ 포토존 조형물과 ‘돌아와요 충무항에’ 노래비를 즐긴다면 더욱 좋다.</p>
사진자료	 

## (경상남도 사천시)



<b>추천 관광지명</b>	남일대해수욕장
<b>지 역</b>	경상남도 사천시
<b>관광지 주소</b>	경상남도 사천시 모래2길 11-19
<b>담당자</b>	경상남도 사천시 관광진흥과 강기현
<b>관광지 사이트</b>	<a href="https://toursacheon.net">https://toursacheon.net</a>
<b>추천이유 (특장점)</b>	<p>신라 말엽 대학자 최치원이 푸른 바다와 은빛 모래의 백사장, 병풍처럼 둘러싼 절경에 감탄하여 ‘남일대’라고 명명한 곳으로 잔잔한 파도와 아담한 모래 해수욕장이 더없이 매력적인 곳이다.</p> <p>바다 위를 나는 듯한 썰라인 체험과 다이내믹한 제트스키, 바나나 보트 등 다양한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어 여름의 시원함과 짜릿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p> <p>해수욕장 동쪽 해변 끝자락에 코끼리가 바닷물을 마시는 형상의 바위 ‘코끼리바위’가 있어 보는 즐거움을 더한다.</p>
<b>연계관광지</b>	<p><b>(아라마루아쿠아리움)</b> 인간과 동물이 교감하는 테마로 조성되어 국내 최초로 수족관에 전시된 하마, 공룡의 후예 슈빌, 잔점박이 물범, 샌드타이거 상어, 유럽비버, 수달, 피라루쿠, 블로치드 팬테일 레이 등 다양한 희귀종을 만나 볼 수 있으며, ‘아라마루 빌리지’를 운영하여 타조, 사막여우, 자카스펭귄, 하이에나 등 20여 종의 동물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다.</p> <p><b>(삼천포대교공원)</b> 사천의 아름다운 한려수도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창선·삼천포대교’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바다 위를 지나는 ‘사천바다케이블카’, 수시로 오가는 작은 어선들이 그림 같이 펼쳐진다. 최고의 백미는 화려한 여름 야경이며, 라이트업한 창선·삼천포대교와 조명을 입은 사천바다케이블카, 공원 내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여름의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p>
<b>사진자료 (남일대해수욕장)</b>	 



(경상남도 김해시)

추천 관광지명	장유대청계곡
지 역	김해시
관광지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계곡길 170-27
담당자	김해시 관광과 이건용
관광지 사이트	<a href="https://www.gimhae.go.kr/00204/03660/00217.web?amode=view&amp;idx=316">https://www.gimhae.go.kr/00204/03660/00217.web?amode=view&amp;idx=316</a>
추천이유 (특장점)	<p><b>【모여라! 계곡·산림·맛집】</b>  불모산 산자락에 양 갈래로 형성된 6km의 계곡으로 맑은 물이 울창한 산림 사이로 흐르면서 폭포를 이루는 등 경관이 빼어나 여름이면 김해시민들의 쉼터가 되어주곤 한다. 계곡을 따라 30분쯤 올라가면 장유사가 있으며, 그 경내에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불법을 전파했다고 한 장유화상의 사리탑이 있다.</p> <p><b>(국립옹지봉자연휴양림)</b> 2022.3.29. 신규 개장한 국립옹지봉자연휴양림은 숙박시설 16개와 부대시설 4개로 숲 해설 프로그램과 목공예 체험 활동이 가능하며, 도심 생활권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 좋다.</p> <p><b>(대청도시숲)</b> 대청도시숲은 대나무 쉼터, 대나무 숲길, 유아숲 체험장이 조성되어 있어 국립옹지봉자연휴양림과 함께 산림욕을 맘껏 누릴 수 있다.</p> <p><b>(대청계곡 누리길)</b> 대청계곡 출렁다리→대청계곡→인공폭포→장유폭포→희망공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대청계곡을 따라 마련된 데크를 걸으며 상쾌한 공기를 느낄 수 있다.</p> <p><b>(음식)</b> 계곡과 관련된 음식이라 하면 오리, 닭백숙이 떠오른다. 대청계곡 음식촌은 오리, 닭백숙과 뿐만 아니라 해실탕, 낙지요리 등 다양한 음식점 그리고 유명한 카페들이 있어 음식 관광을 즐기기에 좋다.</p>
연계관광지	국립옹지봉자연휴양림, 대청계곡 누리길, 대청계곡 음식촌, 대청도시숲, 장유사, 더 세하, 에스키스, 마리봉포레, 카페필로, 착한낙지
사진자료	<div>  <p>장유대청계곡</p> </div> <div>  <p>국립옹지봉자연휴양림</p> </div> <div>  <p>대청도시숲</p> </div>

## (경상남도 밀양시)

<b>추천 관광지명</b>	사명대사 유적지 (기념공원)
<b>지 역</b>	경남 밀양시
<b>관광지 주소</b>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사명대사생가로 681
<b>담당자</b>	경상남도 밀양시 관광진흥과 김들녘 (055-359-5787)
<b>관광지 사이트</b>	<a href="https://blog.naver.com/miryangsi/222690966029">https://blog.naver.com/miryangsi/222690966029</a>
<b>추천이유 (특장점)</b>	<p>임진왜란의 호국영웅이신 사명대사 유적지는 상징광장, 기념관, 추모 마당, 동상, 수변공원, 산책로, 연꽃타워(어린이 놀이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수와 정원, 벤치로 이뤄진 수변공원과 상징광장에서는 나들이와 휴식 등을 즐길 수 있다.</p> <p>기념관은 대사의 어린시절, 출가 및 수도 여정, 유학자/불제자들과의 교류, 호국의 발걸음, 일본과의 평화협상 등 평화시대 5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영상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p> <p>추모광장에는 사명대사 동상과 조형가벽에는 대사의 자비정신, 평양성 탈환, 일본 행렬도 등이 설치되어 있고, 유적지 옆의 저수지 쪽에는 대나무숲길, 데크길 및 황토길이 조성되어 있고, 대사님의 조부모, 부모 묘소로 가는 길에는 야자메트와 데크길이 조성되어 산책길로 적합하다.</p> <p>어린이 동반 가족방문객들을 위해 어린이들이 모험심을 기르고 재미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연꽃모양의 4층 타워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방문객들을 위한 힐링공간으로 대나무숲, 데크길, 그늘집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정비하였다.</p> <p>2006년 68,000평방미터의 부지에 조성했던 유적지가 노후화함에 따라서, 지난 4년간 55억의 사업비를 들여 기념관과 공원을 재정비하여 최근인 2022.4.12. 재개관하였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입구에 무료주차장이 있다.</p>
<b>연계관광지</b>	사명대사 생가지, 표충비(일명 땀흘리는 비석)와 홍제사, 영산정사(동양최대 와불), 어변당, 참샘허브나라(꽃새미마을)
<b>사진자료</b>	 

## (경상남도 거제시)

<b>추천 관광지명</b>	저구 수국동산 & 무지개길(쌍근~저구)
<b>지 역</b>	거제시 남부면
<b>관광지 주소</b>	경남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216-6
<b>담당자</b>	거제시청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이슬아
<b>관광지 사이트</b>	<a href="https://www.geoje.go.kr/user/smarttour/view.geoje?basicSid=1563&amp;festivalStyle=A08&amp;menuCd=DOM_000008504016000000&amp;cpath=">https://www.geoje.go.kr/user/smarttour/view.geoje?basicSid=1563&amp;festivalStyle=A08&amp;menuCd=DOM_000008504016000000&amp;cpath=</a>
<b>추천이유 (특장점)</b>	<p>매년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남부면의 해안길을 따라, 맑은 날 바다의 색을 꽃에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다채로운 빛깔의 수국꽃이 남부면을 물들이고 있다.</p> <p>20년 강산이 두 번 변한다는 긴 시간 동안 땀흘려 가꾸어 온 여름꽃의 여왕 “수국”의 아름다움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품고 있는 남부면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저구항 매물도여객선 터미널 선착장과 수국동산 일원에서 2018년, 2019년에는 수국축제가 열렸으며,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으나 유행 상황이 잠잠해지면 재개될 예정이다.</p> <p>저구항 근처에 있는 쌍근~저구 무지개길은 한적하게 걸기 좋은 데에다 경관이 아름다워 트레킹족에게 인기다. 산과 바다를 같이 즐길 수 있는 무지개길을 걸으며 해질녘 전망대에서는 멋진 노을도 감상할 수 있다.</p>
<b>연계관광지</b>	남부면 주요 관광지로는 명승2호 해금강을 비롯하여 도장포 바람의 언덕, 신선대, 홍포 대소병대도, 여차·함목·명사 해수욕장, 망산과 가라산, 우제봉 전망대 등이 있다.
<b>사진자료</b>	



(경상남도 양산시)

추천 관광지명	내원사 계곡
지 역	경상남도 양산시
관광지 주소	하북면 내원로 207
담당자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관광과 심지원
관광지 사이트	<a href="https://www.yangsan.go.kr/tour/spot/view.do?mld=0102000000&amp;idx=15">https://www.yangsan.go.kr/tour/spot/view.do?mld=0102000000&amp;idx=15</a>
추천이유 (특장점)	<p>내원사 계곡은 경상남도 지정 기념물 제81호이자 양산시 관광명소 8경 중 하나로 동부 경남 지역에서 손에 꼽히는 대표 계곡이다. 고즈넉한 내원사 아래로 울창한 숲 사이로 시원하고 맑게 흐르는 계곡은 독특한 바위들로 둘러싸여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한다. 사계절 내내 맑은 물이 흘러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여 예부터 소금강으로 불리기도 했다.</p> <p>경부고속국도 통도사IC를 지나 국도 35호선에서 동쪽 용연리 내원교로 이어진 지방도 1028번을 타고 따라 가면 내원사까지 연결되어 있어 도심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지만 도심에서 벗어난 느낌을 한껏 느낄 수 있다.</p> <p>수심이 깊지 않아 특히나 여름이면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차가운 계곡물에 발 담그고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기에 더없이 좋으며 백숙과 도토리묵 등 맛있는 음식도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처가 되고 있다.</p>
연계관광지	<p>1. <b>내원사</b> :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대둔사를 창건하면서 둔 89개 암자 중 하나. 6.25 전쟁 때 불에 탄 것을 재건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계곡을 즐기기 전 천성산 속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내원사에 잠깐 들러 옛 문화재의 정취를 느껴볼 수 있다.</p> <p>2. <b>천성산</b> : 해발 922m 높이의 양산 최고 명산으로 계절마다 다양한 옷을 갈아입는다. 대체로 등산코스가 완만한 편으로 내원사에서부터 다양한 코스로 갈 수 있다. 볼거리 풍부한 천성산의 풍광에 매료될 수 있다.</p>
사진자료	 

## (경상남도 창녕군)

추천 관광지명	올해 여름은 옥천계곡이다!
지 역	경상남도 창녕군
관광지 주소	경남 창녕군 창녕읍 계성화왕산로 638
담당자	창녕군, 생태관광과 정은영
관광지 사이트	<a href="https://www.cng.go.kr/tour/sites/00001300.web">https://www.cng.go.kr/tour/sites/00001300.web</a>
추천이유 (특장점)	<p>해발 757m의 화왕산 정상에서 굽이굽이 흘러내린 물길로 형성된 <b>옥천계곡</b>은 시원하고 장쾌한 물줄기와 화왕산 숲에서 불어오는 청량한 바람으로 여름철 피서객들의 <b>최적의 휴양지</b>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화왕산 자락의 옥천계곡과 그 주변의 <b>녹음</b>, 그리고 시원한 그늘은 옥천계곡을 찾은 휴가철 관광객들이 그 시원함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도록 <b>쉼터의 역할</b>을 톡톡히 하고 있다.</p> <p>또한 창녕 옥천에서 먹거리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b>송이 요리</b>다. 여름철이 가까워지면 옥천 계곡을 따라 형성돼 있는 크고 작은 식당들이 피서객을 맞을 손님맞이 준비로 분주하다. 옥천계곡을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송이요리를 맛보는 것도 휴가 중 별미가 될 것이다. 올 해 휴가는 <b>산의 기운과 피톤치드의 청량함</b>을 만끽하고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는 <b>옥천계곡</b>으로 떠나보자.</p>
연계관광지	<p>❖ <b>관룡사와 용선대</b></p> <p>옥천계곡의 또 다른 장점은 인근 가까운 곳에서 문화유산까지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옥천계곡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국보와 보물이 있는 <b>관룡사</b>가 자리 잡고 있다. 관룡사로 오르다 보면 작고 앙증맞은 석문이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이 석문 너머에는 울창하지는 않아도 소박한 대나무길이 있는데, 석문을 통해 바라보는 대나무길의 조화가 아름다워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p> <p>사찰 뒤편으로 이어진 오솔길을 따라 10여 분 가다 보면 서편의 절벽에 자리 잡고 있는 <b>용선대</b> 석조여래좌상이 있다. 연꽃을 형상화한 대좌 위에 모셔져 있는 <b>용선대</b> 석조여래좌상은 정성을 다 해 소원을 빌면 한 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어 저마다 간직한 소원을 빌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p>
사진자료	 



## (경상남도 고성군)

<b>추천 관광지명</b>	당항포 관광지
<b>지 역</b>	경상남도 고성군
<b>관광지 주소</b>	경남남도 고성군 회화면 당항만로 1116
<b>담당자</b>	경상남도 고성군 문화관광지 담당자 :
<b>관광지 사이트</b>	<a href="https://www.goseong.go.kr/tour/index.goseong?menuCd=DOM_000000201002001000">https://www.goseong.go.kr/tour/index.goseong?menuCd=DOM_000000201002001000</a>
<b>추천이유 (특장점)</b>	<p>당항포 진입도로에 식재된 600주 가량의 공룡과 함께 살아온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 펼쳐진다. 당항포 관광지는 2006년을 시작으로 3년주기로 세계공룡엑스포가 개최되어 매회 다양한 주제로 어린이들과 가족이 함께 또 연인이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관광지이다.</p> <p>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두 차례 걸쳐 왜선 57척을 전멸시킨 전승지이며 단지 안에는 희귀 수목이 있는 공룡나라 식물원, 공룡 캐릭터관 등 다양한 테마의 전시관도 있어 볼거리가 가득하다.</p> <p>또한 대한민국 지중해 당항만 앞바다에서 요트, 윈드서핑, 래프팅, 카약 등 각종 해양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 관광지 내 펜션 및 오토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여름시즌에는 야간 개장과 함께 화려한 빛축제시간 반짝반짝 빛으로 가득한 밤 풍경으로 후회 없는 여행이 될 것이다.</p>
<b>연계관광지</b>	<p><b>당항만 돌레길:</b> 바다를 낀 당항만은 일몰 드라이브 코스로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어둑해진 밤하늘 아래, 평온한 분위기 황금빛 바다와 어우러진 낭만적인 일몰 풍경도 감상할 수 있다.</p> <p><b>마암 장산숲:</b> 작은 숲이지만 울창한 나무들로 바람결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가 예쁜곳,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걷기 좋은 숲으로 나무그늘 아래 시원한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며, KBS드라마구르미 그린 달빛, 녹두전 촬영지로도 유명하다.</p> <p><b>구만 수로요:</b> 폐교를 도자기학교로 재탄생시켜 초록의 잔디밭에 놓인 다양한 도자 작품들은 재미난 이야기가 되고 나만의 도자를 만들어 보는 체험프로그램도 즐길수 있다.</p> <p><b>개천 월곡마을:</b> 월곡마을회관 앞 400m의 넓은 땅에 활짝 피어난 양귀비꽃밭 대형의자 포토존이 있어 인생사진 찍기 좋다.</p>
<b>사진자료</b>	

(경상남도 남해군)

<b>추천 관광지명</b>	상주 은모래비치
<b>지 역</b>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b>관광지 주소</b>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 17-4
<b>담당자</b>	경상남도 남해군 문화관광과 이소영
<b>관광지 사이트</b>	<a href="https://sangjubeach.com/">https://sangjubeach.com/</a>
<b>추천이유 (특장점)</b>	남해하면 바다. 남해에서 가장 빼어난 풍경을 가진 해수욕장이다. 부채꼴 모양의 해안 백사장과 그 주위를 둘러싼 소나무숲은 더운 여름에도 잠시나마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 눈앞에 펼쳐진 작은 섬들은 바다를 호수모양으로 감싸고 있다. 파도가 잔잔하고 수온이 따뜻하여 가족단위의 피서지로도 더할 나위 없다.
<b>연계관광지</b>	금산과 보리암 : 조선 태조 이성계가 이 산에서의 기도 끝에 조선을 세우게 되자, 소원을 이루어주는 영세불망의 명산이라는 의미로 온 산을 비단으로 두른다는 뜻의 금산이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그 금산 절벽위에 자리한 보리암은 우리나라 전국 3대 기도처로, 예로부터 한 가지 소원만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다.
<b>사진자료</b>	

## (경상남도 하동군)

<b>추천 관광지명</b>	하동호 산중호수길
<b>지 역</b>	경상남도 하동군
<b>관광지 주소</b>	경남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산 19-1
<b>담당자</b>	경상남도 하동군, 관광진흥과 김나은
<b>관광지 사이트</b>	
<b>추천이유 (특장점)</b>	<p>하동호는 경상남도 하동군과 사천시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지역을 흐르는 묵계천(默溪川)을 가로막아 건설된 하동댐과 함께 만들어진 인공호수입니다.</p> <p>하동군 청암면의 중이리 상이리 평촌리 일대 청암계곡에 산중호수를 이루고 있으며 청암호(靑岩湖)라고도 합니다. 호수를 따라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 안전하게 걸을 수 있으며 드라이브코스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p> <p>호수에 비친 산자락이 데칼코마니를 연상시키며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림같은 전경을 느끼며 일상의 번뇌 잊어보세요.</p>
<b>연계관광지</b>	<p>○ 삼성궁 (위치 : 하동군 청암면 삼성궁길 86-15)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선도를 이어받은 한풀선사가 수자(修子)들과 함께 수련하며 돌을 쌓아올린 1,500여 개 돌탑이 주변의 숲과 어울려 이국적인 정취를 풍겨낸다.</p> <p>○ 청암계곡 (위치 :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깎은 듯한 벼랑에 엉켜있는 태고의 수목, 기암괴석은 넓은 분지와 어우러져 시원함을 더해주며 여름이면 풍부한 수량의 깨끗한 물줄기가 바위와 어우러져 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는 이들을 만족케 하기에 충분하다. 하동댐 바로 아래에는 야영지와 함께 운동장, 공중화장실, 공원 등을 조성하여 가족들의 물놀이와 여름 휴가지로 최적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백바위로 둘러싸인 백암동천은 계곡이 깊고 물이 맑으며 주변에 민박 등의 숙박시설이 준비하여 찾을만한 휴식처가 되고 있다.</p>
<b>사진자료</b>	 



(경상남도 산청군)

<b>추천 관광지명</b>	지리산 중산리계곡
<b>지 역</b>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중산관광지
<b>관광지 주소</b>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 525
<b>담당자</b>	산청군 한방향노화관광국 관광진흥과 김지현
<b>관광지 사이트</b>	<a href="https://www.sancheong.go.kr/tour/selectTourView.do?key=590&amp;ctgryNo=12&amp;tourNo=32">https://www.sancheong.go.kr/tour/selectTourView.do?key=590&amp;ctgryNo=12&amp;tourNo=32</a>
<b>추천이유 (특장점)</b>	지리산의 최고봉 천왕봉에서 비롯된 중산리계곡은 지명 그대로 지리산의 중간에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물이 수정처럼 맑고 시원하며 아름다운 주변경관이 빼어나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즐겨 찾는 계곡이다. 중산리계곡을 이루고 있는 주 골짜기 법천계곡에는 법천폭포와 유암폭포, 무명폭포를 비롯한 소(沼)와 담(潭)이 곳곳에 자리하여 흐르는 물소리를 시시때때로 변화시키며, 마치 자연 교향악처럼 아름다운 물소리를 들려주는 신비로운 계곡이다.
<b>연계관광지</b>	계곡 옆 중산두류생태탐방로는 시천면 중산리 중산마을 입구에서 시작해 중산계곡을 따라 너덜바위까지 1.3.km 데크길로 펼쳐져 있다. 지리산을 등반하지 않더라도 천왕봉 감상이 가능하며 계곡을 내려가지 않아도 우렁찬 계곡소리와 맑은 공기, 싱그러운 숲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조성된 탐방로 상단에는 엄청난 규모의 돌무더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옛날 신선너들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b>사진자료</b>	 

(경상남도 합천군)

<b>추천 관광지명</b>	정양 레포츠 공원
<b>지 역</b>	경상남도 합천군
<b>관광지 주소</b>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613
<b>담당자</b>	경상남도 합천군, 관광진흥과 이고은
<b>관광지 사이트</b>	<a href="http://hcjypark.com/">http://hcjypark.com/</a>
<b>추천이유 (특장점)</b>	<p>사람과 강이 가장 친숙해질 수 있는 장소에 자리한 정양 레포츠 공원은 폭이 넓은 강과 바다보다 멋진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고, 한쪽 편에는 사이사이 간격이 넓은 캠핑장이 들어서 있다.</p> <p>합천의 역사와 주민 생활의 근간인 황강의 흐름에 따라 느껴지는 자연의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을 즐기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시 되는 요즘, 지친 일상을 떠나 해변보다 예쁜 강변에서 가족 또는 연인, 친구와 함께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가득한 추억을 만들기에 최적의 장소이다.</p> <p>특히 어느 곳보다 깨끗한 화장실과 취사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나무 그늘 아래에 그네와 벤치 해먹 등이 자리하고 있어 편히 앉아 물 멍하며 사색할 수 있고, 자연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아낌 없는 휴식을 제공한다.</p>
<b>연계관광지</b>	<p><b>정양늪 생태공원</b>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151)  <a href="https://www.hc.go.kr/jungyang.web">https://www.hc.go.kr/jungyang.web</a></p> <p>지금으로부터 무려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날 무렵 해수면의 상승과 낙동강 본류의 퇴적으로 생겨난 정양늪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자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이어주는 생명의 터이다.</p> <p>정양늪 생태공원은 늪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갖가지 생태체험과 늪 전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주변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어 아늑한 습지를 따라 걷노라면 습지의 정화작용에 마음속 티끌마저 씻겨져 나가는 기분이 든다. 정양늪 생태공원은 그야말로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낙원이라 할 수 있다.</p>
<b>사진자료</b>	 